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16일)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고사리손으로 모은 자비온정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운영하는 선재어린이집 원아들이 무인 자선바자회를 통해 모연된 기금 55만940만원을 2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운양로원에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원아들이 직접 가정에서 가져온 장난감과 의류 판매 등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바자회 물품 일부는 미얀마 난민을 위해 전달됐다. **글= 임은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문화·기후 등 시대적 변화 적극 대응”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신년계획 발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통합종단 60주년 기념행사 예고
전통성 계승한 종단 정체성 확인
문화유산 보존·활용 골자로 한
‘불교 문화비전 2030’ 수립 예고

조계종이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임인년은 제36대 집행부 마지막 임기를 맞는 해인만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잇는 가운데, 종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은 2월 10일 임인년 종단 주요사업계획을 담은 신년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매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한해 계획을 공식화해왔지만,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문서 배포로 대체했다.

원행 스님은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스님은 “2022년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정통성을 간직한 유일한 종단으로 명맥을 이어온 조계종이 비구대처간 분규를 종식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지 60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불교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학술세미나,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불교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시대적·사회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전통과 미래의 공존을 도모한다.

스님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콘텐츠의 보존과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밀레니얼 세대 등 다양한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폭넓은 기대를 국가제도와 종단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 ‘불교문화비전 2030’ 수립을 추진한다. 사찰 곳곳에 민족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의 보존과 콘텐츠로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다. 또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협력으로 추진 중인 불교무형문화유산 연구사업 ‘K-Buddhism’의 차질없는 진행도 약속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해결을 위해 사찰림 활용을 비롯해 불교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선도적인 역할도 예고했다.

스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는 인간의 이기에서 비롯된 예고된 재앙이었다”며 “한국불교의 자산으로 온전히 가꿔 온 사찰림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생명존중과 연기적 삶을 토대로 한 불교적 가치와 친환경 생활문화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불교적 자산을 기반으로 교구본사 차원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서약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찰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불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어 원행 스님은 “새로운 한해가 시작됐지만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위기, 일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범불교도대회 잠정 보류
정기국회 이후 여부 결정

범대책위, 10일 9차 회의서 결의

전국승려대회 후속 조치로 2월 중 봉행 예정이던 범불교도대회가 잠정보류됐다. 불교계는 전국승려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통문화 보존 전승을 위한 입법안과 종교편향 근절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후 봉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종교편향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2월 1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 후속조치로 2월 중 예고된 범불교도대회의 개최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향후 대응계획 논의의 건에서 불교도대회 봉행 여부를 다룬 1차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첫 번째 안은 예정된 날짜인 2월 26일 또는 27일에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하는 안, 두 번째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전 봉행하는 안, 세 번째는 정기국회 상황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본 이후 봉행 여부를 결정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범불교도대회 일정을 보류하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대안의 현실화 여부 등 추이에 따라 봉행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안을 선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책위는 존속시키는 가운데, 향후 추이를 파악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 특별위원장 선광 스님은 “전국승려대회를 통해 불교계 입장을 드러냈고 일부 변화가 있다”며 “범불교도대회를 연기하고 특위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도 “주지 스님들 중에도 범불교도대회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보류하는 3안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대통령 사과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 후 전국승려대회 봉행과 범불교도대회 보류에 관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통문화발전특위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이 반드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돼야 하며, 나아가 국가법령 개정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불교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범불교도대회라는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공공영역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송지희 기자

동안거 해제… 진제 종정예하 정진 당부

2월 15일 전국 선원 해제법회

신축년 동안거 기간 중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좌들이 2월 15일 해제를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해제 이후에도 부단한 정진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2월 15일 신축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내린 해제법어에서 “산문을 폐쇄하고 결제해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달이 되고 어느 듯 구순이 지나갔다. 이렇듯 시간이란 신속하다”면서 “해제일이 됐다고 화두를 놓아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할 것”이라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이어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자나 깨나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하여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정리한 〈신축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올해 동안거에는 전국 100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62곳, 비구니선원 31곳)에서 총1978명(총림 251명, 비구 1097명, 비구니 630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방장 법어 5면〉

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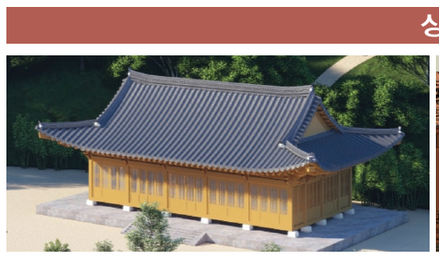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